

화려한 격파·절도있는 품새... 무더위 날렸다

IOC 선수위원 후보 본격 경쟁 돌입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막 내리

격파·품새·겨루기 부문 총 2578명 경합

제21회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격파(347명)·품새(1,308명)·겨루기(923명) 부문에서 총 2578명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대회는 우석대학교와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태권도학과와 산학협력단이 주관했으며, 전북도·완주군·전북도의회·전라북도체육회·완주군의회·완주군체육회·전북태권도협회·완주군태권도협회·전북일보사·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등이 후원했다.

3일부터 2일간 진행된 격파는 남녀중·고등부에서 체공도와격파와 수직축회전격파, 수평축회전격파, 종합격파로 나뉘어 진행됐다.

남녀 고등부 수직축회전격파 부문에서는 유현우(삼천포고)의 3명이, 수평축회전격파에서 오민형(영동포고)의 3명이, 체공도와격파에서 오강호(안양고)의 4명이 종합격파에서 한지수(원곡고)의 3명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종합우승은 HTS경희대석사태권도장이 차지했다.

5일부터 3일간 진행된 품새는 공인 품새 개인전(남녀 각 18개부)·복식전

(혼성 5개부)·단체전(남녀 각 5개부)과 자유품새 개인전(남녀 각 5개부)·복식전(혼성 3개부, 단체전(혼성 3개부)으로 나뉘어 펼쳐졌다.

남녀 108명이 출전한 공인품새 고등부(3년)에서는 류준상(동해광희고)과 이주영(조원고)이, 자유품새 개인전 대학일부에서는 추선우(가천대)와 정하은(한체대)이 각각 1위에 올랐다. 품새 종합우승은 하나비람태권도장에 돌아갔다.

남녀 고등부 각 10체급으로 나뉘어 진행된 겨루기 부문에서는 김용호(관악고·핀급)·홍의준(관악고·플라이급)·김민준(관악고·밴텀급)·공원석(삼일고·페더급)·최지성(한성고·라이트급)·김해강(서울체고·웰터급)·윤건웅(남녕고·L-미들급)·정준서(신목고·미들급)·김성근(백석고·L-헤비급)·이환(강원사대부고·헤비급)이 남자고등부 1위에 올랐다.

여자고등부에서도 박수아(영광고·핀급)·김민재(고양고·플라이급)·윤도영(성안고·밴텀급)·황민애(영송여고·페더급)·김다은(경북체고·라이트급)·도희재(서울체고·웰터급)·신현희(연제고·L-미들급)·박수현(무주고·미들급)·남공서연(시



제21회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한 선수들이 격파를 선보이고 있다.

온고·L-헤비급)·박주현(전남체고·헤비급)이 1위를 차지했다.

겨루기 종합우승은 관악고(남자고등부)와 영송여고(여자고등부)가 차지했으며, 공원석(삼일고·남자고등부)과 도희재(서울체고·여자고등부)가 최우수선수상을, 김원재(관악고·남자고등부)·전서연(영송여고·여자고등부) 감독은 최우수지도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으며, 그 성장세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태권도의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태권도의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개회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김세혁

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겸 국가원 선수위원장, 이종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윤수봉 전북도의원, 김재천·최광호 완주군의원, 이명철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석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은 품새와 격파 등을 접목한 태권극 의병대장 이석웅을 선보여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연경 등 비공개 면접 진행

오진혁, 전지훈런 참가로 불참

한국 스포츠의 전설 김연경, 박인비, 진종오, 이대훈, 김소영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한국 선수위원 후보자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배구 김연경, 골프 박인비, 사격 진종오, 태권도 이대훈, 배드민턴 김소영, 양궁 오진혁 등 후보 8명은 지난 4일까지 IOC 선수위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5년 IOC 선수위원 후보로 선정됐을 당시 3명(유승민·장미란·진종오)보다 5배 늘었다.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오진혁은 이날 면접에 불참해 기권 처리됐다. 현재 오진혁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하는 2022 프랑스 파리 전지훈련에 참가 중이다.

대한양궁협회는 "후보 신청을 했을 때 정확한 면접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면접 날짜가 10일이어서 지난 7일 대한체육회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다른 방법을 문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서류 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 원로회의 등의 평가를 진행하고 다음달 1일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한다. 최종 후보자는 IOC 선수위원 선거에 한국 대표로 나선다.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에 신설된 원로회의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김정길 전 대한체육회장이 의장을 담당하고 박용성·김정행 전 체육회장, 이강두·서상기 전 국민생활체육회장, 장충식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영 전 대한골프협회장, 권운방 서울대 체육교과과 명예교수, 천신일 세종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내년 파리 올림픽 기간에 각국 국가 올림픽위원회(NOC)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총 4명의 IOC 선수위원을 선출한다. 역대 한국인 IOC 선수위원은 2명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첫 선출 사례를 만든 태권도 문대성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당선된 유승민 대한탁구 협회장이자.

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IOC 선수위원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후보 5명은 외국 어능력 등을 평가하는 비공개 면접을 치렀다.

이날 면접에 앞서 5명의 후보는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오를 드러냈다. /뉴스

청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산타 종목 '동메달'

호원대 졸업생 송기철, -70kg서 활약... "항저우 아시안게임서 꼭 애국가 울릴 것"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졸업생 송기철 선수(사진)가 제31회 청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제31회 청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는 본래 2021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2년 연기돼 올해 중국 청두에서 지난달 28일 열여 이달 8일 폐회했다.

대학경기대회는 2년에 한 번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대회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이미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21년에 진행돼야 했던 대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3년도에 진행, 이번에 송기철 선수는 호원대학교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



한 것이다. 2021년도 호원대 무도경호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송기철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산타 종목인 -70kg에서 활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두대회 동메달 획득 소감 질문에 송기철 선수는 "이번 결과가 더욱 감회가 새롭고, 좋은 것은 좋았지만 여전히 저를 적극적으로 믿고 지지해주는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서 축하해주심에 더욱 뜻 깊다. 앞으로 열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꼭 대한민국 국기와 애국가를 울리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제31회 청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344명이 출전해 15종목 중 메달 58개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북, 스포츠 열기로 '후끈'

태권도문화엑스포·월드시니어 배드민턴 등 내달까지 총 42개 대회 도내 일원서 개최

전북도가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지난 2일 제7회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를 시작으로 8월과 9월 내내 다채로운 국제·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가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8월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예정하고 있어 스포츠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 동호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야구, 사격, 탁구, 검도, 테니스, 자전거, 골프 등 10여 종목의 생활체육 대회 개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천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연이은 대회 유치를 통해 4만 5,8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짐을 삼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제8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6시~8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진 국민MC - 서정우
가수 - 백미현(난바람, 난눈물) 이태원(솔개, 여인아) 박영일(축제) 노스텔지어(별미소) 백영주 최영준